

조루

컴

컴퓨터 통신에 답변을 하다보면 이혼을 하게 되는 사소한 이유중에 하나가 남편의 무관심과 원만치 못한 부부 생활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남성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것들에 대해 섬세한 여성들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증후라고 비약하게 된다.

다음 사연도 통신을 통해 올라온 편지이다.

“24세된 동갑내기 회사 내에 커플입니다.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신혼의 밤을 보냈으나 기대했던 흥분은 오지 않았습니다. 왠지 몰라도 남편은 삽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돌아 눕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미처 관계를 갖기 전에 사정을 한 듯합니다. 그후 신혼여행에서의 첫날밤에 실패한 이후 줄곧 남편과의 성관계 시간은 길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남들은 평생에 할 성관계를 신혼때 거의 다 한다는 말을 하나 남편은 성관계조차 자주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자위행위를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위행위를 많이 하면 성관계 시간이 짧아지는지요. 돌아눕는 남편을 볼 때면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마저도 듭니다.” 사연을 읽는 동안 계속 살아야하나하는 갈등을 느끼고 있음이 역력했다.

간혹 신혼때 성관계를 실패할 경우 그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에 의해 발기가 잘 안되는 발기부전이 오는 경우가 있다.

남편은 신혼초 긴장감과 자극으로 인하여 성기를 질 내에 삽입하기 이전에 일찍 사정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다 보니 성관계에 자신감도 없어지고 사정시간도 짧아진 것 같다.

이러한 경우를 조루라고 한다.

만족스런 성관계란 서로간에 만족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파트너가 오르가즘에 도달할 때까지 사정을 기다릴 수도 있어야 한다.

성관계를 갖다보면 상대는 때때로 빨리 흥분을 원할 수도 있다. 1~2분 내에 절정에 도달할 수도 있고 반면에 5,10분간 고원기를 유지하기도 한다.

삽입 전이나 후에 절정에 쉽게 도달할 수 있게끔 상대를 자극한다. 상대가 느끼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사정을 하면서 절정감을 느끼는 시기를 조정한다.

이때 만일 본인 스스로 사정시간을 조절할 수 없다면 조루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학문적으로 조루의 정의에는 여러 학설이 있다.

관계를 갖기 직전에 사정하는 경우를 말하기도 한다. 삽입 후 3분이내를 조루라고 하기도 한다. 반면에 상대방 여성이 오르가즘에 도달하기 전에 사정하는 경우가 전체 횟수의 반을 차지할 때 말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일단 이러한 일들이 남성이 원하

기 전에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사정시간을 본인 뜻대로 조절한다는 것은 성관계를 하는 동안에 절정에 도달한 후 사정할 시기를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늦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가능하다. 본인의 능력에 대하여 신뢰를 갖을 때 자의적 조절이 가능하다.

정상적으로 본인의 뜻대로 조절한다는 것은 무조건 사정을 못하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성관계로는 전혀 사정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를 사정지연이라고 하여 병적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는 조루의 반대 개념으로 여성 질 안에서 절정에 도달하기 힘든 경우로 삽입 시간이 길다.

조루에 대한 치료는 그동안 민간요법이나 의사들에 의해 콘돔을 사용하거나 마취연고나 분무제를 음경에 바르거나 항문에 힘을 주는 방법, 진정제 등 약물요법들이 권고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이 모두에게 성공적인 것이 아니다. 약간의 성적 흥분을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일단 흥분이 되면 자제할 수가 없다.

일부에서는 귀두에 조그만 자극에도 사정을 할 정도로 귀두가 예민한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국소 마취제로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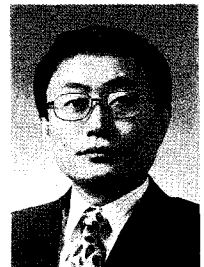
따라서 약을 이용하여 지연시키는 방법보다도 귀두의 예민도가 심한 경우에는 음경의 배부에 위치한 신경을 차단시켜주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물론 이때에는 귀두의 예민도를 측정해보고 본인 또한 조그만 자극에도 사정조정이 안된다고 느낄 때 귀두부위 신경수술을 할 경우 시간지연이 가능하다.

남성이 성반응을 잘 조절할수 만 있다면 질적으로 우수한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성관계를 하는 동안 갑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성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면 상대도 불안하게 된다.

또한 사정을 하지않으려고 성행위 동안에 직장에서 좋지 않았던 일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거나, 혹은 강한 흥분을 피하고자 성행위의 강도를 떨어뜨린다면 파트너는 상대가 사정을 막기위해 노력하는 것도 모르고 남편이 자신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며 고민을 한다.

너무 민감한 내용이라 말하기에도 거북하며 속마음을 털어놓기에는 부담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되풀이된다면 가정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조루는 치료가 가능하다.



이윤수비뇨기과 원장